

常用漢字表 蟹攝韻의 字音 分類

이경철*
kanzi22@empal.com
하소정**
kawasj@naver.com

<目次>

- | | |
|-------------|----------------|
| 1. 序論 | 2.9 合口2等 夬韻 |
| 2. 本論 | 2.10 開口3等 祭韻乙類 |
| 2.1 開口1等 哈韻 | 2.11 開口3等 祭韻甲類 |
| 2.2 開口1等 泰韻 | 2.12 合口3等 祭韻乙類 |
| 2.3 合口1等 灰韻 | 2.13 合口3等 祭韻甲類 |
| 2.4 合口1等 泰韻 | 2.14 合口3等 廢韻 |
| 2.5 開口2等 皆韻 | 2.15 開口4等 齊韻 |
| 2.6 開口2等 佳韻 | 2.16 合口4等 齊韻 |
| 2.7 合口2等 皆韻 | 3. 結論 |
| 2.8 合口2等 佳韻 | |

主題語: 蟹攝(Group of *Xie*), 吳音(Sino-japanese *Go'on*), 漢音(Sino-japanese *Kan'on*), 聲母(Initials), 韻(Rhymes)

1. 序論

일본에서는 1981년 이래 常用漢字 1,945자를 사용해 오다가 2010년 11월에 구 常用漢字 1,945자에서 5자를 삭제하고, 196자를 추가하여 2,136자의 새로운 常用漢字를 사용하고 있다. 常用漢字에 대한 字音分類는 佐藤喜代治編(1996) 『漢字百科大事典』의 「常用漢字・人名用漢字の漢音・吳音對照表」에서 실시한 1981년의 1,945자의 字音分類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 凡例에서 밝혔듯이, 이 對照表는 『角川大字典』이라는 현용 漢和辭典을 근거로 하였고, 일부 『角川新字典 改訂版』을 참고로 한 것이다.

常用漢字는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자로, 기초적인 일본어 음운연구의 대상임에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교수, 제1저자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대학원 수료

도 불구하고, 常用漢字表에 그 字音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佐藤喜代治編(1996)의 對照表 이외에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공식적인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佐藤喜代治編(1996)의 對照表 역시 여러 가지 오류가 존재하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字音에 대한 규정이 일본에서 출간된 현행 漢和辭典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각각의 漢和辭典 또한 통일된 字音規定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2010년의 2,136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字音別 분류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漢和辭典에 나타나는 字音規定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李京哲(2005·2006)과 李京哲·白惠英(2008·2009·2011)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漢和辭典마다 字音規定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1,945자 또는 2,136자에 대한 字音分類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고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시간과 치밀한 분석을 동반하는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常用漢字 2,136字의 2,352音에 대한 字音分類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체 漢字에 대한 字音分類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果·假·遇攝韻에 해당하는 常用漢字 267字 299音에 대해서는 즐고(2013a)에서, 流·效攝韻에 해당하는 235字 258音에 대해서는 즐고(2013b)에서 고찰하였고, 본고에서는 蟹攝韻에 해당하는 常用漢字 137字 205音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吳音·漢音·唐音·慣用音으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각 字音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각 漢字音마다의 字音分類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실시한다.

- 1) 常用漢字表 2,136字의 音讀 2,352音 중에서 蟹攝의 137字 205音을 대상으로 한다.
- 2) 각 漢字를 各 攝韻별로 나눈다.
- 3) 각 攝韻별로 해당 常用漢字의 常用漢字音을 추출한다.
- 4) 각 韻別로 해당 常用漢字音을 韻母의 반영과 聲母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 5) 해당 韻이 吳音, 漢音, 唐音자료의 고문헌에서 어떤 자음형으로 출현하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常用漢字音을 그 韻母별 자음형과의 비교를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 6) 해당 常用漢字音을 中古漢語의 聲母體系와 비교하여 그 聲母의 반영을 통해 字音별로 분류한다.
- 7) 吳音과 漢音의 자음형이 동일할 경우, 또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요하는 자음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증자료를 통해 그 확인 작업을 거친다.

上代借字표기자료: 萬葉集, 古事記, 日本書紀¹⁾

吳音자료: 法華經, 大般若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²⁾
 漢音자료: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³⁾
 唐音자료: 金光明懺法, 小叢林略清規, 觀世音菩薩普門品⁴⁾
 現用 漢和辭典: 大漢和辭典(1984, 大修館書店), 新明解漢和辭典(1990, 三省堂), 漢和辭典(1997, 講談社), 漢語新辭典(2001, 大修館書店), 新選漢和辭典(2003, 小學館), 漢字源(2003, 學習研究社)

8) 記紀萬葉의 借字表記에 출현하는 자음형은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吳音에 포함시킨다.

2. 本論

이하 각 韻별로 해당 常用漢字의 字音を 吳·漢音동형,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그 분류의 방법, 절차, 이유에 대해 논증해 가도록 한다.

2.1 開口1等 哈韻

吳漢(21): 카이改(見k)·開(溪^h)·海(曉^h)/아이哀曖(影?)/타이戴(端)·貸胎態(透^h)/라이來(來l)/사再(精ts)/사이再災宰裁載(精ts)·采彩採菜(清^{ts^h})·塞(心s)

吳音(6): 가이効(匣h)/다이代台(定d)/자이在材財(從dz)

漢音(9): 아이愛(影?)/타이待袋代台怠(定d)/사이才裁財(從dz)

慣用音(4): 가이概該(見k)·慨(溪^h)·타이耐(泥n)

開口1等 哈韻은 36字 40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ai 형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그 聲母만이

1) 萬葉集은 大塚毅(1978), 古事記는 高木市之助·富山民藏(1974), 日本書紀는 大野晉(1953)를 사용한다.
 2) 法華經은 小倉肇(1995), 般若波羅蜜多經은 김정빈(2007), 新譯華嚴經은 榎木久薰(1988), 光明眞言은 榎木久薰(1989), 承曆音義는 小倉肇(1979), 類聚名義抄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3) 蒙求·群書治要·三藏法師傳·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4) 沼本克明(1997:584-622)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字音판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濁字를濁音으로 반영한 [ガイ劾(匣h)/다이代台(定d)/자イ在材財(從dz)]는吳音으로,濁字를淸音으로 반영한 [タイ待袋代台怠(定d)/사이才裁財(從dz)]는漢音으로, 나머지吳音과漢音에서聲母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카이改(見k)·開(溪k^h)·海(曉h)/아이哀愛曖(影)]/タイ戴(端)·貸胎態(透^h)/라이來(來l)/사이再災宰栽載(精ts)·采彩採菜(淸ts^h)·塞(心s)]는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サ再(精ts)]와 같은 -a형이 출현하는데, 佐藤喜代治編(1996:422)에서는 [サ再]에 대한字音分類가 누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漢和辭典에서 이를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다⁵⁾. 그러나蟹攝 제운에 걸쳐 이처럼韻尾 i가 생략된 자음형이吳音·漢音자료뿐만 아니라 한국한자음⁶⁾과 베트남한자음⁷⁾에까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唐代의 걸친麻韻化와 관련없이,蟹攝 諸韻에서韻尾 i가 약화된方言이 존재하였고, 이것을 반영한 자음형이 각국한자음에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エ愛(影)]는 佐藤喜代治編(1996:410)과三省堂(1990)에서는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으며,小學館(2003)에서는 [アイ]와 더불어吳音에 포함시키고 있다. [愛(影)]는吳音·漢音자료에서 [アイ]로만 출현하고 있지만,吳音자료에서도 [導礙闕(ㄱ⁸)] 등의 -e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萬葉集에서도 [エ]의借字表記字로 쓰였다. 현지명의 [愛媛エヒシ]은 그記紀萬葉의借字表記形이 남아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記紀萬葉의借字表記를 별도의字音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는吳音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ガイ概該(見k)·慨(溪k^h)·タイ耐(泥n)]는淸濁의 혼동에 의한 예이므로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2.2 開口1等 泰韻

吳漢(6): 타이帶(端)·太泰(透^h)/타太汰(透^h)/라이賴(來)

吳音(2): 게이害(匣h)/다이大(定d)

漢音(1): 타이大(定d)

5) [サ再]를 大漢和(1984),三省堂(1990),講談社(1997),大修館(2001),小學館(2003),學研(2003) 모두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6) 한국한자음에서는開口2等 佳韻의 [佳가, 差차], 合口2等 佳韻의 [蛙와, 晝화], 合口2等 夬韻의 [話화] 등을 들 수 있다. 李京哲·崔智淳(2014:26-34)을 참조하기 바란다.

7) 베트남한자음에서는開口1等 哈韻의 [猜sa], 合口1等 灰韻의 [按na], 開口2等 佳韻의 [杈訝sa], 開口2等 佳韻의 [駮卦kua, 冏絀cha, 蛙ca, 晝ha] 등을 확인할 수 있다. 三根谷徹(1993)의越南漢字音對照表를 참조하기 바란다.

8) 宋在漢(2012:87)을 참조하기 바란다.

慣用音(1): ガイ蓋(見k)

開口1等 泰韻은 8字 10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ai형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그 聲母만이 字音판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ガイ害(匣h)/다이大(定d)]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タイ大(定d)]는 漢音으로, 나머지 吳音과 漢音에서 聲母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タイ帶(端)·太泰(透^h)/라이賴(來l)]는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夕太汰(透^h)]와 같은 -a형이 출현하는데, 佐藤喜代治編(1996:433)에서도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이를 모두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哈韻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형은 한국한자음과 베트남한자음에서도 출현하며, 吳音·漢音자료⁹⁾의 1·2等韻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ガイ蓋(見k)]는 淸濁의 혼동에 의한 예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2.3 合口1等 灰韻

吳漢(11): 카이灰悔(曉h)/타이退堆(透^h)/라이雷(來l)/하이杯背輩(幫p)·配(滂^h)/사이催(淸ts^h)·碎(心s)

吳音(12): 에回(匣h)/ツイ对(端) /바이倍培陪賠(並b)/마이每妹昧枚(明m)/나이内(泥n)/자이罪(從dz)

漢音(7): 카이回潰(匣h)/바이梅媒(明m)/타이对(端)·隊(定d)/다이内(泥n)

慣用音(1): 와이賄(曉h)

合口1等 灰韻은 28字 31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주로 -(w)ai형으로 출현하며, 吳音에는 -(w)e형과 -ui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w)ai형에 대해서는 그 聲母만이 字音판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바이倍培陪賠(並b)/자이罪(從dz)]와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마이每妹昧枚(明m)/나이内(泥n)]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카이回潰(匣h)/타이隊(定d)]와 淸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바이梅媒(明m)/다이内(泥n)]는 漢音으로, 나머지 吳音과 漢音에서 聲母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타이退堆(透^h)/라이雷(來l)/하이杯背輩(幫p)·配(滂^h)/사이催(淸ts^h)·碎(心s)]는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9) 吳音자료인 法華經에서는 害(カ), 太(夕), 癩(ラ), 漢音자료인 蒙求에서는 捺(夕), 佛母大孔雀明王經에서는 蓋(カ)와 같이 韻尾 i가 생략된 -a형을 찾을 수 있다. 宋在漢(2012:88), 佐々木勇(2009:86), 李京哲(2005a:219)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ㄷ回(匣h)]는 그 聲韻가 ㄱ행으로 반영된 점으로 보아 吳音임이 명확하다. [ㄷ이취(端t)]는 佐藤喜代治編(1996:433)과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이를 吳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學研(2003)에서는 唐音으로 분류하고 있다. [ㄷ이취]는 吳音¹⁰⁾과 唐音¹¹⁾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지만, 唐音은 일부 어휘에만 고정되어 남아 있으며, 唐音자료에서 이런 고정화된 어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吳音으로 분류하였다.

[ㄱ외(曉h)]는 淸濁의 혼동에 의한 예에 대하여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ㄷ이취]는 灰韻透母와 脂韻合口穿母에 해당하는 多音字이므로, 止攝에서 다루기로 한다.

2.4 合口1等 泰韻

吳漢(1): 사이最(精ts)

吳音(3): 겐외(疑ŋ)/ㄷ이취(匣h)

漢音(3): 가이외(疑ŋ)/카이취(匣h)

合口1等 泰韻은 4字 7音으로, 漢音에서는 -(w)ai형이 출현하며, 吳音에서는 -(w)e형과 -(w)ai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w)e형에 해당하는 [겐외>겐외(疑ŋ)/ㄷ이취(匣h)]는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w)ai형에 대해서는 그 聲母만이 字音판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淸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사이最(精ts)]는 吳·漢音동형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크외>카이취(匣h)]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겐외>가이외(疑ŋ)]는 吳音에서 [겐외>겐]라는 다른 자음형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이를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2.5 開口2等 皆韻

吳漢(7): 카이戒界皆階(見k)·楷(溪k^h)/아이挨(影ʔ)/사이齋(莊tʃ)

吳音(1): 가이骸(匣h)

漢音(4): 카이介(見k)·械諧(匣h)/사이殺(山ʃ)

開口2等 皆韻은 11字 12音으로, 漢音은 일괄적으로 -ai형으로 출현하지만, 吳音은 -ai형 이외

10) 吳音자료에서 [취]에 대해서는 [타이]라는 音註만이 발견되지만, [堆, 搥, 搥]에 대해 [ㄷ이], [丙]에 대해 [ㄷ이]라는 音註를 확인할 수 있다. 宋在漢(2012:89-90)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唐音자료에서 合口1等 灰韻은 -ai형으로 출현한다. 沼本克明(1997:570-571)를 참조하기 바란다.

에 -e형과 -ei형이 혼재한다. 따라서 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カイ骸(匣h)]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械諧(匣h)]는 漢音으로, 나머지 吳音과 漢音에서 聲母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카이戒界皆階(見k)·楷(溪k^h)/아이挨(影ʔ)/사이齋(莊f)]는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카이介(見k)]와 [사이殺(山f)]는 吳音에서 [ㄱ]와 [세이]¹²⁾라는 자음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2.6 開口2等 佳韻

吳漢(5): 카佳(見k)/카이街(見k)/가이涯·崖(疑ŋ)/사이債(莊f)

吳音(1): ㄱ解(匣h)

漢音(1): 카이解(匣h)

慣用音(1): 가이街(見k)

開口2等 佳韻은 6字 8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주로 -ai형으로 출현하며, 일부 -a형이 혼재하며, 또한 吳音에는 -e형도 출현한다. 먼저 -e형은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ㄱ解(匣h)]는 吳音으로, [카이解(匣h)]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 -ai형은 그 聲母만이 字音관별의 기준이 되지만, [카이街(見k)/가이涯·崖(疑ŋ)/사이債(莊f)]는 모두 吳音과 漢音에서 聲母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淸字에 해당하기 때문에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카佳(見k)]는 佐藤喜代治編(1996:413)과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이를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¹³⁾, 앞서 언급한대로 -a형은 한국한자음과 베트남한자음에서도 출현하며, 吳音과 漢音에 모두 출현¹⁴⁾하여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이街(見k)]는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2.7 合口2等 皆韻

吳漢(2): 카이塊(溪k^h)/하이攄(幫p)

吳音(1): 마이埋(明m)

12) 宋在漢(2012:90-91)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카佳]를 大漢和(1984), 三省堂(1990), 講談社(1997), 大修館(2001), 小學館(2003), 學研(2003) 모두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吳音자료인 法華經에서도 佳(カ)를, 漢音자료인 蒙求에서도 佳(カ)를 찾을 수 있다. 宋在漢(2012:92), 佐々木勇(2009:92-93)를 참조하기 바란다.

漢音(5): 카이怪(見k)·懷壞(匣h)/하이俳排(並b)

합口2等 皆韻은 8字 8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주로 -(w)ai형으로 출현하며, 吳音에는 -e형이 혼재한다. 그러므로 -(w)ai형은 그 聲母만이 字音판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淸·次淸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카이塊(溪^h)/하이拜(幫p)]는 吳·漢音동형으로,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마이埋(明m)]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懷壞(匣h)/하이俳排(並b)]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카이怪(見k)]는 吳音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지만 [怪我ヶカ] 등에서 吳音形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동일 韻에 [懷壞クエ>ケ, エ>エ]와 같은 -e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2.8 合口2等 佳韻

吳漢(2): 카이拐(見k)/하派(滂^h)

漢音(2): 바이壳買(明m)

합口2等 佳韻은 4字 4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주로 -(w)ai형으로 출현하는데, 그 외에 -(w)a형이 혼재하며, 吳音에는 -(wei)형이 혼재한다. 따라서 -(w)ai형·-(w)a형은 그 聲母만이 字音판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淸·次淸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카이拐(見k)/하派(滂^h)]는 吳·漢音동형으로, 淸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바이壳買(明m)]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2.9 合口2等 夬韻

吳漢(1): 하이敗(幫p)

吳音(2): 가画(匣h)/ワ話(匣h)

漢音(1): 카이快(溪^h)

합口2等 夬韻은 4字 4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주로 -(w)ai형으로 출현하는데, 그 외에 -(w)a형이 혼재한다. 따라서 -(w)ai형·-(w)a형은 그 聲母만이 字音판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淸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하이敗(幫p)]는 吳·漢音동형으로, 匣母字를 가·ワ行으로 반영한 [가画(匣h)/ワ話(匣h)]는 吳音으로 분류하였다. [話ワ]에 대해서는 佐藤喜代治編(1996:448)과 모든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畫グワ>カ]에 대해서도 學研(2003)에서만 吳音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佐藤喜代治編(1996:413)과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蟹攝 1·2等韻에서 -(w)a형은 한국한자음, 베트남한자음, 吳音, 漢音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慣用音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그 聲母에 따라 吳音이나 漢音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カイ快(溪^h)]는 吳音에서 [クエ>ケ]¹⁵⁾라는 자음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2.10 開口3等 祭韻乙類

漢音(2): ケイ揭憩(溪kh)

開口3等 祭韻乙類은 2字 2音으로, 吳音에서는 -ai형이나 -e형으로, 漢音에서는 -ei형으로 출현한다. [揭憩(溪^h)]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19)에서는 吳音·漢音 모두 [ケイ]로 기재하고 있으며, 漢和辭典에서도 漢音은 모두 [ケイ]로 기재하고 있지만, 吳音에 대해서는 [ケイ]·[ケ]·[カイ] 등으로 그 자음형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현재 吳音資料에서 확인할 수 있는 祭韻을류자는 [揭]뿐인데, 여기에서 [ケ]의 音註¹⁶⁾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等 重韻에서 을류는 拗音性を 반영하지 않고 簡류만 그 拗音性を 반영하는 吳音의 특성을 고려하면, 祭韻을류의 吳音은 -ai형이나 -e형이 기대된다. 따라서 -ei형에 해당하는 [ケイ揭憩(溪^h)]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2.11 開口3等 祭韻甲類

吳漢(6): ゲイ芸(疑ŋ)/レイ励例(來l)/セイ制製(照tc)·勢(審c)

吳音(3): サイ祭際(精s)/セ世(審c)

漢音(3): 세世(審c)·逝誓(禪z)

慣用音(1): 타이滯(定d)

15) 吳音에서는 -(w)ai형·-(w)a형 이외에 快(クエ)와 같이 -(w)e형이 출현한다. 宋在漢(2012:93)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宋在漢(2012:97)을 참조하기 바란다.

開口3等 祭韻甲類은 12字 13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ei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吳音에는 -ai형·-e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ai형·-e형에 해당하는 [サイ祭際(精s)/ㄷ世(審c)]은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ei형은 그 聲母로써 吳音·漢音을 구분해야 한다. -ei형에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ㄷ世逝誓(禪z)]는 漢音으로, 나머지 吳音과 漢音에서 聲母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ㄱ이芸(疑j)/ㄹ이勵例(來l)/ㄷ世制製(照tc)·勢(審c)]는 吳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ㄷ世(審c)]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30)에서는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漢和辭典에서도 [ㄷ世]를 吳音으로 규정한 사전과 慣用音으로 규정한 사전으로 나뉜다. 그러나 [ㄷ世]는 吳音資料인 法華經과 光明眞言에서 [ㄷ]17)라는 音註는 확인할 수 있으나, [ㄷ이]라는 音註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ㄷ世]는 吳音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ㄷ이滯(定d)]는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2.12 合口3等 祭韻乙類

漢音(1): ㄷ이衛(于'∅)

合口3等 祭韻乙類는 孤例의 [ㄷ이衛(于'∅)]로 吳音은 [ㄷ], 漢音은 [ㄷ이>ㄷ이]로 출현하므로, [ㄷ이衛(于'∅)]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2.13 合口3等 祭韻甲類

吳漢(2): ㄷ이銳(喻j)/ㄷ이蔽(幫p)

吳音(1): ㄷ이歲(心s)

漢音(3): ㄷ이幣弊(並b)/ㄷ이歲(心s)

慣用音(2): ㄷ이稅說(審c)

合口3等 祭韻甲類은 7字 8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w)ei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吳音에는 -(w)ai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ai형에 해당하는 [ㄷ이歲(心s)]는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ei형은 그 聲母로써 吳音·漢音을 구분해야 한다. -ei형에서 淸字를 淸音으로 반영

17) 宋在漢(2012:97)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 것과 喻母의 [ㄷ>ㄷ이銳(喻j)/ㄷ이蔽(幫p)]는 吳·漢音동형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ㄷ이幣弊(並b)]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ㄷ이歲(心s)]는 吳音에서 [사이]로 출현하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하였으며, [ㄷ이稅說(審c)]는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2.14 合口3等 廢韻

吳漢(2): 하이廢(非f)·肺(敷p^h)

合口3等 廢韻은 2字 2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ai형으로 나타나, [하이廢(非f)·肺(敷p^h)]는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2.15 開口4等 齊韻

吳漢(10): 케이繼鷄(見k)·啓契溪(溪k^h)/테이低底抵抵諦(端)

吳音(13): 타이体替(透^h)/다이第題弟(定d)/데弟(定d)/라이禮(來l)/사이濟(精ts)·妻切(淸ts^h)
·西細(心s)/자이劑(從dz)

漢音(20): 케이係計(見k)·稽(溪k^h)·系(匣h)/테이帝堤(端)·体(透^h)·弟提締遞(定d)/데이
泥(泥n)/레이麗禮隸(來l)/세이淒(淸ts^h)·齊(從dz)·西婿(心s)

慣用音(2): 케이詣(疑j)/타이逮(定d)

開口4等 齊韻은 41字 45音으로, 吳音·漢音 모두 -ei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吳音에는 -ai형·-e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ai형·-e형에 해당하는 [타이体替(透^h)/다이第題弟(定d)/데弟(定d)/라이禮(來l)/사이濟(精ts)·妻切(淸ts^h)·西細(心s)/자이劑(從dz)]는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e형인 [데弟(定d)]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36)과 小學館(2003)을 제외한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데弟]¹⁸⁾는 [다이]와 함께 吳音資料인 法華經에서 그 音註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데弟(定d)]의 [데]와 [다이] 모두 吳音으로 규정할 수 있다.

-ei형은 그 聲母로써 吳音·漢音을 구분해야 하는데, -ei형에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18) 宋在漢(2012:100)을 참조하기 바란다.

[ケイ系(匣h)/テイ弟提締通(定d)/세이齊(從dz)]와 淸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다이泥(泥n)]는 漢音으로, 나머지 그 聲母로써 吳音과 漢音을 구별할 수 없는 [케이繼鷄(見k)·啓契溪(溪h)/테이低底抵氏諦(端)]는 吳·漢音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케이係計(見k)·稽(溪h)/테이帝堤(端)·체(透h)/레이戾麗禮隸(來l)/세이淒(淸ts^h)·西媚(心s)]는 吳音에서 그에 대응하는 [ケ/タイ/ライ/サイ]¹⁹⁾가 출현하기 때문에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케이詣(疑)/타이逮(定d)]는 淸濁의 혼동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2.16 合口4等 齊韻

吳漢(1):~이閉(幫p)

吳音(3):エ惠(匣h)/마이米(明m)/메이迷(明m)

漢音(4):케이惠携(匣h)/~이陞(並b)/베이米(明m)

慣用音(1):ヒ批(滂p^h)

合口4等 齊韻은 吳音·漢音 모두 -(w)ei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吳音에는 -(w)ai형·-(w)e형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ai형·-e형에 해당하는 [エ惠(匣h)/마이米(明m)]는 吳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ei형은 그 聲母로써 吳音·漢音을 구분해야 한다. -ei형에서 淸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이閉(幫p)]는 吳·漢音동형으로, 淸濁字를 鼻音으로 반영한 [메이迷(明m)]는 吳音으로, 濁字를 淸音으로 반영한 [케이惠携(匣h)/~이陞(並b)]와 淸濁字를 濁音으로 반영한 [베이米(明m)]는 漢音으로 분류하였다. [메이迷(明m)]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44)과 여러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이]만을 吳音으로 규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迷(明m)]에 대해 法華經, 新譯華嚴經, 類聚名義抄 등의 吳音資料에서 [메이]²⁰⁾의 音註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히려 吳音資料에서 [마이]의 音註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메이迷]는 吳音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ヒ批(滂p^h)]는 聲符字인 [比]에서 類推한 音이므로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19) 宋在漢(2012:99-101)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宋在漢(2012:100)을 참조하기 바란다.

3. 結論

지금까지 常用漢字 중에서 蟹攝韻에 해당하는 137字 205음을 대상으로, 이를 吳·漢音동형,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攝	韻	吳漢同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	合計
蟹	哈(開1)	21	6	9	0	4	40
	泰(開1)	7	2	1	0	1	11
	灰(合1)	11	12	7	0	1	31
	泰(合2)	1	3	3	0	0	7
	皆(開2)	7	1	4	0	0	12
	佳(開2)	5	1	1	0	1	8
	夬(開2)	0	0	0	0	0	0
	皆(合2)	2	1	5	0	0	8
	佳(合2)	2	0	2	0	0	4
	夬(合2)	1	2	1	0	0	4
	祭(開3을)	0	0	2	0	0	2
	祭(開3갑)	6	3	3	0	1	13
	祭(合3을)	0	0	1	0	0	1
	祭(合3갑)	2	1	3	0	2	8
	廢(合3)	2	0	0	0	0	2
	齊(開4)	10	13	20	0	2	45
	齊(合4)	1	3	4	0	1	9
合計		78	48	66	0	13	205

- 1) 위의 표와 같이 蟹攝韻에 해당하는 137字 205음 중에서 吳·漢音동형이 78音, 漢音が 66音, 吳音が 48音, 慣用音が 13音이라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 2) 開口1等 哈韻의 [ㄱ再(精ts)]는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蟹攝 1·2等韻의 -a형은 吳音, 漢音, 韓國한자음, 베트남한자음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中國어의 音韻變化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蟹攝 諸韻에서 韻尾 i가 약화된 方言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ㄱ再(精ts)]는 吳·漢音동형에 해당한다.
- 3) [愛(影)]는 吳音·漢音자료에서 [アイ]로만 출현하고 있지만, 萬葉集에서 [エ]의 借字表記字로 쓰였다. 현지명의 [愛媛エヒメ]은 그 記紀萬葉의 借字表記形이 남아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記紀萬葉의 借字表記를 별도의 字音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는 吳音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4) [ツイ夬(端)]에 대해 學研(2003)에서 唐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吳音에 해당한다.

- 5) 祭韻을류의 [揭憩(溪^k)]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19)에서는 吳音·漢音 모두 [ケイ]로 기재하고 있지만, 그 吳音은 [ク·カイ]이므로, [ケイ]는 漢音으로 분류해야 한다.
- 6) 祭韻갑류의 [七世(審^c)]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30)과 일부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七世]는 吳音資料에서 확인할 수 있어 吳音으로 분류된다.
- 7) 齊韻의 [テ弟(定^d)]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36)과 小學館(2003)을 제외한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テ弟]는 [ダイ]와 함께 吳音資料에서 그 音註를 확인할 수 있어, [テ]와 [ダイ] 모두 吳音으로 규정할 수 있다.
- 8) 齊韻의 [メイ迷(明^m)]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44)과 여러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メイ迷]는 吳音資料에서 그 音註를 확인할 수 있어, 吳音으로 규정할 수 있다.

【參考文獻】

<辭典 및 資料>

- 김정빈(2007)「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 分紐分韻表」『일본오음연구』책사랑
 李京哲(2005a)『佛母大孔雀明王經 字音研究』책사랑
 榎木久薰(1989)「光明真言土沙勸信記の字音について」『鎌倉時代語研究』第12輯, 鎌倉時代語研究會
 _____(1998)「高山寺藏寛喜元年識語本新訳華嚴經加點字翻刻並びにこ分韻表」『鎌倉時代語研究』第21輯, 鎌倉時代語研究會
 大塚毅(1978)『萬葉假名音韻字典上・下』勉誠社
 大野晉(1953)「日本書紀字音仮名一覽」『上代假名遣いの研究-日本書紀の仮名を中心として-』岩波書店
 小倉肇(1978)「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Ⅰ)」『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第40號, 弘前大学
 _____(1979)「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Ⅱ)」『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第41號, 弘前大学
 _____(1995)『日本吳音の研究 第Ⅱ部 資料篇』新典社
 鎌田正·米山寅太郎(2001)『漢語新辭典』大修館書店
 柏谷嘉弘(1965)「凶書寮本文鏡秘府論字音点」『国語学』第六十一集, 国語学会
 小林信明(2003)『新選漢和辭典』小學館
 佐々木勇(2009a)『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資料篇』汲古書院
 高木市之助·富山民藏(1974)『古事記總索引』平凡社
 竹田晃·坂梨隆三(1997)『漢和辭典』講談社
 長澤規矩也·原田種成·戸川芳郎(1990)『新明解漢和辭典』三省堂
 築島裕(1967)「興福寺本大慈恩寺三藏法師伝古点の国語学的研究」東京大學出版會
 沼本克明(1995)「觀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日本漢字音史論輯』築島裕<編> 汲古書院
 _____(1997)「宋音·唐音統合分紐分韻表」『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汲古書院
 諸橋轍次(1984)『大漢和辭典』大修館書店
 李珍華·周長楫(1998)『漢字古今音表』中華書局

<論文>

김정빈(2007)『일본오음연구』책사랑, pp.238-255, pp.303-308

宋在漢(2012)『日本 吳音의 韻類體系 研究』東國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pp.86-109

申智娟(2012)『『古事記』에 사용된 借表記字의 字音體系 研究』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p.43-55

李京哲(2005)「한화사전 관음음표기의 문제점에 대하여」『日本文化研究』第1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471-488

_____ (2006)「漢和辭書における吳音規定の問題點」『日本文化研究』第19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367-384

_____ (2009)「日本漢字音의 字音形에 나타나는 拍의 關與에 대해서」『日本語學研究』第25輯, 韓國日本語學會, pp.129-142

_____ (2013a)「果・假・遇攝韻의 字音 分類-常用漢字表의 字音을 대상으로-」『日本研究』第20輯, 高麗大學校 日本研究所, pp.5-23

_____ (2013b)「流・效攝韻의 字音 分類-常用漢字表의 字音을 대상으로-」『日本言語文化』第25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355-370

李京哲・白惠英(2008)「漢和辭典 慣用音 표기의 實像-陽聲・入聲字의 誤記例를 중심으로-」『日本語學研究』第22輯, 韓國日本語學會, pp.201-216

_____ (2009)「漢和辭典에 나타나는 漢音 規定의 問題點」『日本語文學』第41輯, 韓國日本語文學會, pp.117-130

_____ (2011)「漢和辭典에 나타나는 唐音 規定의 問題點」『日本言語文化』第19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287-297

李京哲・宋在漢(2012)「日本吳音에 혼입된 記紀萬葉의 자음형에 대하여-陰聲韻을 중심으로-」『日本研究』第53號,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349-364

李京哲・崔智淳(2014)「韓國漢字音 蟹攝韻의 母胎別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日本文化學報』第 60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25-44

小倉肇(1995)『日本吳音の研究 第 I 部 研究篇』新典社, pp.418-757

佐々木勇(2009b)『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汲古書院, p.349, p.508

佐藤喜代治編(1996)「常用漢字・人名用漢字の漢音・吳音對照表」『漢字百科大事典』明治書院, pp.410-448

沼本克明(1982)『平安鎌倉時代に於る日本漢字音に就ての研究』武蔵野書院, pp.537-599, pp.823-849

_____ (1997)『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汲古書院, pp.354-356, pp.358-360

三根谷徹(1993)『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汲古書院, pp.393-495

森博達(1991)『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大修館書店, pp.54-96

山田孝雄(1958)『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寶文館, pp.157-178

湯沢質幸(1987)『唐音の研究』勉学社, pp.61-106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12-113

GÜNTHER WENCK(1957) JAPANISCHE PHONETIK, OTTO HARRASSOWITZ WIESBADEN, pp.224-247

W. South Coblin(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pp.95-104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常用漢字表 蟹摂韻의 字音 分類

2010년의 新常用漢字 2,136字 중에서 蟹攝의 137字 205음에 대해, 吳·漢音동형,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의 5가지로 字音分類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1) 蟹攝韻에 해당하는 137字 205音 중에서 吳·漢音동형이 78音, 漢音이 66音, 吳音이 48音, 慣用音이 13音이라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 2) [再サ·太汰夕·佳カ·畫ガ·話ワ] 등과 같은 蟹攝 1·2等韻의 -a형을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蟹攝 1·2等韻의 -a형은 吳音, 漢音, 한국한자음, 베트남한자음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音韻變化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蟹攝 諸韻에서 韻尾 i가 약화된 方言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蟹攝 1·2等韻의 -a형은 吳音이나 漢音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3) [愛(愛?)]는 吳音·漢音자료에서 [アイ]로만 출현하고 있지만, 萬葉集에서 [エ]의 借字表記字로 쓰였다. 현지명의 [愛媛エヒメ]은 그 記紀萬葉의 借字表記形이 남아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記紀萬葉의 借字表記를 별도의 字音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는 吳音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4) [ツイ(對端)]에 대해 學研(2003)에서 唐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吳音에 해당한다.
- 5) 祭韻을류의 [揭(懸)ケイ]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19)에서는 吳音·漢音 모두 [ケイ]로 기재하고 있지만, 그 吳音은 [ケ·カイ]이므로, [ケイ]는 漢音으로 분류해야 한다.
- 6) 祭韻갑류의 [七世(審)セ]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30)과 일부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セ世]는 吳音資料에서 확인할 수 있어 吳音으로 분류된다.
- 7) 齊韻의 [弟(定)テイ]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36)과 小學館(2003)을 제외한 대부분의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弟]는 [ダイ]와 함께 吳音資料에서 그 音註를 확인할 수 있어, [テ]와 [다이] 모두 吳音으로 규정할 수 있다.
- 8) 齊韻의 [迷(明)メイ]에 대해 佐藤喜代治編(1996:444)과 여러 漢和辭典에서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메이]는 吳音資料에서 그 音註를 확인할 수 있어, 吳音으로 규정할 수 있다.

The Classification of sounds on usual sino-japanese characters(2010); mainly on the group of *Xie*(蟹)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sounds of usual sino-japanese characters(2010) into 5 types of *Go'on*, *Kan'on*, *Go'on & Kan'on*, *To'on*, *Kan'yo'on*; mainly on the 205sounds 137characters in groups of *Xie*(蟹).

- 1)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was classified that 66 sounds of *Kan'on*, 48 sounds of *Go'on*, 78 sounds of *Go'on & Kan'on* same type, 13 sounds of *Kan'yo'on* in 205 sounds in groups of *Xie*(蟹). It is very important as that next to classify on the group of *Xie*(蟹).
- 2) -A type as like *Sa*(再サ)·*Ta*(太汰夕)·*Ka*(佳カ)·*Ga*(畫ガ)·*Wa*(話ワ) is classified as a *Kan'yo'on* in sino-japanese dictionaries because of it is different with ai type of *Go'on & Kan'on*, but it means there are dialect that have a weakened final i because of appeared in sino-japanese but also in sino-korean, sino-vietnam. As a result, -a type must be classified as a *Go'on* or *Kan'on*.
- 3) *Ai*(愛) was appeared as a *Ai* in sino-japanese *Go'on & Kan'on*. But, it was a *E* in the notation of *Manyosyu*. *E* of *Ehime*(愛媛) is effect of notation in *Manyosyu*. As a result, *E*(愛) must be classified as a *Go'on* because of notation in *Kikimanyo* is not classified kind of sino-japanese.
- 4) *Tsui*(對ツイ) is classified as a *To'on* in sino-japanese dictionary of *Gakusyukenyusyu*(2003), but it must be classified as a *Go'on*.
- 5) *Kei*(揭(懸)ケイ) is classified as a *Go'on & Kan'on* in *Sato*(1996:419), but it must be classified as a *Kan'on* because of it appeared as a *Kai* or *ke* in the notation of *Go'on*.
- 6) *Se*(世七) is classified as a *Kan'yo'on* in *Sato*(1996:430) & a lot of sino-japanese dictionaries, but it must be classified as a *Go'on* because of it appeared sa a *Se* in the notation of *Go'on*.
- 7) *De*(弟) is classified as a *Kan'yo'on* in *Sato*(1996:436) & a lot of sino-japanese dictionaries, but it must be classified as a *Go'on* because of it appeared sa a *De* in the notation of *Go'on*.
- 8) *Mei*(迷メイ) is classified as a *Kan'yo'on* in *Sato*(1996:444) & a lot of sino-japanese dictionaries, but it must be classified as a *Go'on* because of it appeared sa a *Mei* in the notation of *Go'on*.